

## 영어학습자의 요청화행에 나타나는 화용적 전이(2)\*

고인수  
영미어문학부

### 1. 머리말

본 연구는 Blum-Kulka(1991)의 중간언어 화용론(interlanguage pragmatics)의 틀을 바탕으로 경험적 자료 수집 절차를 통하여 각각 학습 환경(learning context)을 달리하는 한국인 영어학습자들의 요청화행 구현에 나타나는 사회화용적 전이(sociopragmatic transfer) 현상의 존재와 그 양상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Ko(1995)에서 밝혀낸 요청화행의 사회화용적 측면(sociopragmatic aspects)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영어를 배우는 학습자 집단(이후 EFL 집단이라 칭함)과 미국에서 영어를 배우는 학습자 집단(이후 ESL 집단이라 칭함)의 영어 요청화행 구현에 내재된 상황변인에 대한 인식 평가 양상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모국어(이후 L1이라 칭함)와 목표언어(이후 L2라 칭함) 환경이 영어학습자의 인식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본다. 이와 같은 연구는 Kasper(1990)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고인수(1998)에서 밝혀낸 학습환경을 달리하는 두 집단간의 요청화행 구현에 나타난 화용언어적 전이(pragmalinguistic transfer) 양상의 변이에 따른 내재적 동인을 밝혀내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화용언어적(pragmalinguistic) 연구의 결과들은 문화·언어간 화행 구현의 차이를 경험적으로 기술하는데 주력하여 소위 Wolfson

---

\* 본 연구는 울산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음.

(1989)의 사회언어적 상대성(sociolinguistic relativity)의 양상을 밝히는 데 기여해 왔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화행전략의 대조분석만으로는 학습자 언어가 나타내는 중간언어(이후 II이라 칭함)의 특성을 설명할 수 없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학습자가 목표언어로의 화행 구현에 있어 전략선택의 준거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내재된 변인들에 대한 심리적 평가(psychological assessment)의 실체를 밝혀내는 것은 II의 특성을 설명하는데 주요 방편이 될 수 있다(cf. Blum-Kulka/House 1989). 모국어 화자 집단은 각각 자신의 언어공동체에 내재된 사회문화적 가치판단의 패턴을 근거로 주어진 상황에서 화행전략을 선택하게 된다(cf. Blum-Kulka/House 1989; Ko 1995). 한편, 학습자의 관점에서 보면 주어진 말화상황에 대한 심리적 평가는 L1 공동체에 내재된 사회·문화적 가치체계와 새로이 학습하게 되는 L2 공동체의 사회·문화적 가치체계가 그 기반이 된다. 따라서 학습자는 학습환경의 성격과 학습발달 정도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로 L2 공동체의 가치체계를 습득해가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L2 공동체내에서 '사회적으로 적합한'(socially appropriate) 화행 구현에 근접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화행전략의 선택과 상황변인에 대한 심리적 평가 사이의 상관성 정도는 습득 발달과정의 특성을 나타낼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즉, 초급단계의 학습자의 경우는 L1 공동체의 영향으로 이 둘 사이의 상관성이 매우 낮거나 불안정(unstable)할 것이며, 상급단계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안정적(stable)인 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학습환경이 다른 경우 EFL 상황의 특성상 학습이 주로 교실환경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입력(input)의 제한성과 더불어 feedback의 제한으로 인하여 L1 공동체의 화용적 체계가 전이될 가능성이 크며, 반면에 ESL 환경의 학습자는 L2 환경이 갖는 입력의 양과 질뿐만 아니라 feedback의 기회를 보다 풍부하게 갖게 됨으로써 L2 사회의 적합성(appropriateness) 규범에 보다 근접할 수 있는 화행구현의 이점을 갖게 될 것이다.

Wolfson(1989, 140)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학습자의 언어행위 조사연구는 L2의 전달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의 습득과정에서

범할 수 있는 전달오류(miscommunication)에서 학습자 모국어의 사회언어적 또는 화용적 체계의 어떤 규칙과 패턴이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며, 이를 통하여 학습자 전달오류에 취약한 부분을 확인·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

## 2. 이론적 배경

Blum-Kulka 등(1989b)은 언어란 특정 화행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전제하고, 언어사용과 이들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용맥락 속에 포함된 사회적, 상황적 변인들과의 상호관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cf. Blum-Kulka et al. 1985; Blum-Kulka/House 1989). Blum-Kulka/House(1989)에 따르면 Hebrew, German, Argentinian Spanish의 모국어 화자들은 5개 요청상황에 내재된 6개 매개변인들<sup>1)</sup>에 대한 평가에 있어 해당언어 공동체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요청화행의 간접성(indirectness) 수준과 요청상황에 내재된 사회적 매개변인(social parameters)들 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이고 있으며, 그 양상은 각기 해당 언어공동체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sup>2)</sup>.

Holtgraves/Yang(1990) 및 Lim/Bowers(1991) 등은 영어와 한국어 요

- 
- 1) Blum-Kulka/House(1989, 140)은 CCSARP의 5가지 요청 상황에 내재된 사회적 변인들로 obligation, right, difficulty, familiarity, compliance, dominance 등을 설정하여 Hebrew, German, Argentinian Spanish 모국어화자들의 심리적 평가자료를 바탕으로 사회문화적 규범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 2) 3집단 모두에 있어서 6개 변인들중 요청에 대한 이행 의무(obligation)는 요청화행의 직접성을 결정하는 공동적 변인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그 비중은 각기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요청에 대한 '수락 가능성'(compliance) 변인은 Hebrew 모국어화자 집단에서, 요청의 권리(right) 변인은 German 모국어화자 집단에서만 직접성 선택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힘(dominance) 변인은 Hebrew와 German에서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청화행의 간접성과 사회적 거리(social distance), 사회적 힘(social power)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밝히고 있으며, Holtgraves/Yang(1992)은 힘(power)과 거리(distance)의 두 변인들의 영향은 요청의 크기(size), 즉 부담(imposition) 변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요청의 부담이 커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힘(power)과 거리(distance) 변인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감소함을 보이고 있다. 한편, Ko(1995)는 분석 대상의 5개 요청 상황에 내재된 사회적 변인들에 대한 평가에 있어 한국어와 미국영어 모국어화자 집단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sup>3)</sup>. 그는 부담(imposition) 변인을 보다 명시적으로 구분한 Blum-Kulka/House(1989)의 접근 방법을 바탕으로 미국영어의 경우는 궁극적으로 청자가 요청행위에 응할 의무(obligation)의 정도가 요청화행의 간접성 전략 선택에 영향을 미치며, 한국어의 경우는 청자의 의무(obligation), 화자가 청자에게 요청에 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right), 화자가 요청행위를 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difficulty)의 정도 등의 변인들이 간접성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임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두 집단 사이의 요청상황에 대한 인식에 있어 사회·문화적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들 사회적 변인들에 대한 평가의 상대적 차이는 관련된 요청화행의 간접성 정도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언어간 화용적 체계의 차이는 SL 습득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SL 학습자는 L2로 그들의 화용적 의미를 전달할 때 유사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다. Kasper/Blum-Kulka(1993)에 따르면 학습자가 L1과 L2의 화용적 체계가 다르다는 것을 모르거나 또는 알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무의식적으로 L1의 화용적 체계를 L2에 적용함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오행나 의사전달 불능상태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SL

3) 관련된 인식 평가치에 대한 t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Kitchen: distance(-2.32, p<.05), right(-6.57, p<.01); Notes: obligation(4.09, p<.01), right(-2.79, p<.01), compliance(2.47, p<.05); Ride: dominance(-4.30, p<.01), right(-2.86, p<.01); Policeman: dominance(-3.72, p<.01), obligation(-3.84, p<.01), difficulty(5.57, p<.01); Lecturer: difficulty(5.15, p<.05)

학습자들의 II 체계는 발달과정에서 L1, L2 두 언어공동체에 존재하는 화용언어적 체계와 사회화용적 체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어떤 형태로든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화용적 체계에 대한 인식평가와 화행전략 선택의 차이는 학습자들의 L2 화행 구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되며, L1 공동체의 사회적 규범에 따른 상황변인에 대한 인식평가는 L2 공동체의 사회적 규범에 부적합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L2의 사회문화적 변인들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의 변이는 L2 학습자의 학습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는데, Takahashi/Beebe(1987)는 일본인 EFL, ESL 학습자들의 영어 거절(refusal) 화행 연구를 통하여 두 집단은 거절 전략의 순서와 그 빈도에서 모국어인 일본어로부터 전이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EFL 집단은 ESL 집단 보다 상대적으로 일본어의 영향이 두드러짐을 보이고 있다. 고인수(1998)는 학습환경을 달리하는 두 학습자 집단의 요청화행에 나타난 간접성의 정도(degree of indirectness), 전략유형(strategy types), 관점(perspectives), 내적수식어류(internal modifiers), 외적수식구문(external modifications)의 내용과 그 빈도 및 순서 등, 화용언어적 측면의 전이(transfer) 양상과 발달과정의 추이를 밝히고 있는데, 요청전략의 선택과 그에 따른 간접성 정도(degree of indirectness), 상용적 간접성(conventional indirectness) 전략에서의 관점(perspectives)의 선호경향 등에서 EFL집단은 ESL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L1인 한국어의 영향이 두드러짐을 보이고 있다<sup>4)</sup>. Blum-Kulka/House(1989), Blum-Kulka(1991) 등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한국인 EFL

4) 이러한 화용언어적 전이양상의 차이는 Takahashi/Beebe(1987)의 가설 중 L2 구사 능력과의 관련성 여부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원론적으로 L2 숙달(proficiency)이란 개념은 단순한 언어적 숙달(linguistic proficiency)의 정도뿐만 아니라 L2에 내재된 특정 화용언어적 제약(pragmalinguistic constraints)에 관련된 화용언어적 숙달(pragmalinguistic proficiency)과 L2 공동체의 사회문화적 규범에 내재된 적합성(appropriateness)에 관한 적응 정도를 나타내는 사회화용적 숙달(sociopragmatic proficiency) 등에 관한 학습자 자신의 습득발달 정도를 나타내는 이론적 구성체(theoretical construct)로 보아야 할 것이다(cf. Blum-Kulka 1991).

집단의 요청전략과 요청의 내·외적 구조선택에 있어서의 전이의 상황적 변이(situational variability)는 상황변인들에 대한 인식평가에 있어 L2 공동체 구성원들과 차이를 보이며, 이러한 결과로 해당 상황에서의 L2 공동체에 내재된 공손의 적합성 규범에 따르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Kasper/Blum-Kulka(1993, 8)등이 지적하고 있듯이 화행전략의 선택에 있어서 SL 화자는 L2 모국어화자에 비하여 담화의 상황적 요인(contextual factors)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덜 민감할 가능성이 많다. 예를 들어 일본인 영어학습자의 경우 영어모국어 화자와는 달리 힘(power)과 사회적 거리(social distance)등의 상황별 변이에 대한 적절한 분별없이 동일한 요청전략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Tananka 1988; Fukushima 1990). 감사(gratitude) 표현에 있어서 영어모국어화자는 상황에 내재된 책무(indebtedness)의 정도에 따라 화행의 길이(length)를 변화시키는데 반하여, 다양한 모국어 배경을 가진 SL 학습자들의 화행은 그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Eisenstein/Bodman 1986; Bodman/Eisenstein 1988).

이러한 결과의 원인을 추론해 보면 EFL집단은 대부분 교실과 같은 소위 격식적인 맥락에서의 영어학습이 주류를 이루게 되므로 사회언어적, 사회화용적 적합성의 규칙들을 경험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적절하고 충분한 기회를 갖기 어려운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sup>5)</sup>. 반면에 ESL집단은

---

5) IL의 체계는 학습환경에 따라 다소 다른 양상으로 발전될 수 있는데, 외국어로서의 언어(이후 FL이라 칭함) 학습환경에서 IL의 특성은 학습자가 접하게 되는 L2 자료의 입력(input)이 제한되어 이에 따른 영향을 받게된다. 소위 교사담화(teacher talk)로 알려지고 있는 특정 사용역(register)의 언어자료가 가지는 특성을 지니게 된다(Trosborg, 1995). 이들은 구조적으로 간소화된 문형과 자연발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발화의 길이가 짧고, 비문법적인 문장을 허용하지 않는 완벽히 문법적인 문장 등으로 입력이 제공되며, 교실상황에서의 교사와 학습자들의 전형적인 1대 다중(one-to-many) 유형의 상호작용으로 구성된다. 이와는 달리 제2 언어(이후 SL이라 칭함)로서의 환경은 소위 자연발화환경으로 대부분의 상호작용은 1대 1(one-to-one) 유형의 담화패턴을 형성하며, 상호작용의 대부분은 대화자 상호간의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이 된다. 그러나, 교실환경에서의 교사와 학습자 사이의 상호작용은 이러한 담화자 상호간의 목적달성을 위한 것보다는 대부분 형식적인 연습 그 자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된다. 이런 경우 L2에 대한 화용적 규범

목표언어 공동체의 사회적 규범에 자연스럽게 노출됨으로써, 담화상황에 내재된 사회화용적, 사회언어적 적합성 규칙들을 이해하고 적용해 봄으로써 이를 습득할 경험적 기회를 보다 많이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추론은 담화상황 속에 내재된 상황변인들에 대한 집단간 인식평가의 차이를 조사해 보고, 주어진 상황에서의 특정표현이 갖는 담화효과(communication effect)에 관한 경험적 조사를 통하여 입증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검증 절차는 Kasper(1992)의 제안과 같은 맥락에서 Takahashi/Beebe(1987), Beebe 등(1990)의 전이가능성(transferability)의 상황 의존적 특성 등을 보다 명시적으로 규명하는데 필수적인 절차로 여겨진다.

### 3. 실험

#### 3.1 실험방법

##### 3.1.1 피실험자

학습환경을 달리하는 두 한국인 영어학습자 집단은 미국에서 영어를 배우는 40명의 한국인 대학(원)생들-이후 ESL 집단이라 칭함-과 국내에

---

(pragmatic norm)은 교사언어와 교재에 의해 쉽게 통제될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상호작용과 관련된 담화상황이 내포하고 있는 사회언어적, 사회화용적 변인들의 다양성과 그 적절성에서도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FL 환경에서 자연적 담화상황과 같은 다양한 상황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기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학습환경의 차이에 따라 자연담화 상황에서의  $\Pi$ 은 구조적 형태(syntactic forms)보다는 화용적 측면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많다. 또한 이러한 상호작용 모형에 따른 차이는 학습자 언어의 출력(output)에 있어서 양적, 질적인 차이로 귀결될 수 있다. Seliger(1983)가 지적하고 있듯이, 질적인 측면에 있어서 FL 환경에서 유추될 수 있는 내용은 모국어로부터의 전이(transfer)에 기인하는 오류의 빈도가 높다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SL 환경에서의 학습자 언어는 주로 L1과 L2체계의 차이에 기인하는 중간언어 오류(interlanguage errors)를 주로 포함하게 된다(고인수 2000).

서 영어를 배우는 54명의 대학(원)생들-이후 EFL 집단이라 칭함-로 구성되며, L1과 L2 집단은 각각 국내에서 영어를 전공하지 않은 97명의 한국인 대학(원)생들-이후 KNS 집단이라 칭함-과 미국에 거주하는 33명의 미국인 대학(원)생들-이후 ENS 집단이라 칭함-로 구성되었다<sup>6)</sup>. 이들의 연령별 구성은 다음 <표 1>과 같으며, 성별 구성은 <표 2>와 같다. 한편, ESL 집단의 경우 미국 현지 평균체재 기간은 3.35년이며, 기간별 구성은 1년 미만 1명, 1~2년 10명, 2~3년 6명, 3~4년 11명, 4년 이상 12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들은 학부나 대학원의 전공과정 학생들로 영어구사능력은 5단계 척도를 기준으로 평균 3.4 단계에 해당되었다.

&lt;표 1&gt; 연령별 구성

ENS	KNS	ESL	EFL
평균/구간	평균/구간	평균/구간	평균/구간
20.5/18~24	21.47/19~27	30.0/23~36	28.0/21~37

&lt;표 2&gt; 성별구성

ENS	KNS	ESL	EFL
남/여	남/여	남/여	남/여
10/23	56/41	30/10	21/33

### 3.1.2 실험도구 및 절차

실험에 참여한 모든 구성원들은 Ko(1995)에 제시된 DCT(Discourse

- 6) 이들중 영어 및 한국어 모국어 화자집단은 Ko(1995)의 연구에서와 동일하다. KNS 집단은 국내 5개 지역 소재의 5개 대학(원)생들로 구성되었으며, ENS집단은 미국의 Indiana University at Bloomington에 재학중인 대학(원)생들로 구성 되었다. EFL집단은 국내 5개 지역 소재 9개 대학에 재학중인 비영어전공 대학(원)생들로 구성 되었으며, ESL집단은 미국의 Indiana University at Bloomington를 포함한 Indiana주 소재 3개 대학 및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 유학중인 한국인 대학(원)생들로 구성되었다.



Completion Test)<sup>7)</sup>를 작성하였다. KNS 집단은 한국어로 작성된 담화설문지를, ENS, EFL, ESL 등 나머지 세 집단은 영어로 된 담화설문지를 작성토록 하였다<sup>8)</sup>. DCT는 Blum-Kulka 등(1989a)의 CCSARP에서 사용

- 7) 담화자료 수집의 한 방편으로서 DCT는 그 제한점에도 불구하고(cf. Rintell/Mitchell 1989; Wolfson, Mamoz/Jones 1989; Beebe 1985) 여전히 화행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 실용적, 이론적 측면의 가치를 지닌 유용한 도구로써 사용되어지고 있다. 비록 자연발화가 갖는 소위 진정성(authenticity)의 문제를 가만하더라도 DCT는 Hill 등(1986, 353)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개인의 실제 발화속에 나타나는 변이형들의 소위 'prototypes'을 얻어낼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다. 이러한 DCT의 이론적 유용성 관점에서 Blum-Kulka 등(1989b, 13)은 교차문화적 관점의 비교화용론을 위해서는 발화행위의 전형적 측면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토론은 Ko(1995, 92-94)를 참조하기 바람.
- 8) DCT의 내용중 일부는 다음과 같으며 전체에 관한 세부사항은 Ko(1995, 225-230)를 참고하기 바람.

1. You are asked to rate each parameter on a scale of 5, where 1 represents the lowest point and 5 the highest, in the given situations.

A. Kitchen situation:

You ask your roommate to clean up the kitchen that s/he had left in a mess the night before.

- (1) your relative status to the hearer;

*very low*                 *very high*

1    2    3    4    5

- (2) your relative familiarity/distance to the hearer;

*very low*                 *very high*

1    2    3    4    5

- (3) the hearer's degree of obligation in carrying out the request;

*very low*                 *very high*

1    2    3    4    5

한 5가지 요청 상황들로 구성되며, 각각은 변별적인 상황내·외적변인 (context-internal/external variables)들을 내포하고 있으며<sup>9)</sup>, 이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S1 (Kitchen situation) You ask your roommate to clean up the kitchen that s/he had left in a mess the night before.
- S5 (Notes situation) You ask your not-so-close classmate to lend you some notes.
- S7 (Ride situation) You ask your familiar neighbour (in his 50s) to give you a ride to the airport so that you can catch an earlier flight.

---

(4) the speaker's degree of right in issuing the request;  
*very low*                      *very high*

---

1    2    3    4    5

(5) the estimated degree of difficulty you had in making the request;  
*very low*                      *very high*

---

1    2    3    4    5

(6) the estimated likelihood of compliance on the part of the hearer, i.e. the possible degree of your compliance-gaining;  
*very low*                      *very high*

---

1    2    3    4    5

9) 각 상황에 내재된 대화자 상호간의 변인별 구성은 다음과 같다.

Situation Type	Social Distance	Dominance
Kitchen	-	*x=y
Notes	+	x=y
Ride	-	x<y
Policeman	+	x>y
Lecturer	-	x>y

\* x, y 는 상황에 관련된 답화자를 나타냄

S11 (Policeman situation) You are in an unfamiliar part of town and unintentionally park your car in a 'No parking' area. As you get out of your car a policeman comes up to you and asks you to move your car.

S15 (Lecturer situation) Your professor asks you to present your paper a week earlier than scheduled.

### 3.1.3 DCT 자료 분석

수집된 DCT 자료는 CCSARP의 분석틀에 따라 6가지 상황 내외적 변인들에 대한 집단별 인식 평가치로 구분 기록되었다. 이를 대상으로, Spearman Rank Order Correlation Coefficients, t 검증, Chi-square 분석 등의 통계적 처리를 거쳐 4 집단의 인식평가 평균값에 대한 통계적 의미를 추출하였다.

## 3.2 결과

5개 요청상황에 내재된 6개 사회적 변인들에 대한 집단별 인식평가의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lt;표 3&gt; 요청상황의 변인에 대한 집단별 인식평가

Sit.	Sub.	dominabce		distance		obligation		right		difficulty		compliance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S1	ENS	3.39	1.17	2.24	1.30	4.12	0.93	4.61	0.56	2.57	1.09	3.88	0.99
	ESL	3.10	1.01	2.25	1.19	3.75	1.08	4.25	0.84	2.55	1.30	4.15	0.89
	EFL	3.11	0.96	2.42	1.27	3.83	1.19	3.81	0.99	2.67	1.18	3.76	0.87
	KNS	3.09	0.71	1.68	0.85	3.79	1.04	3.72	0.92	2.54	1.19	4.05	0.92
S5	ENS	2.61	0.83	3.94	0.90	2.06	1.00	2.70	1.01	3.64	0.93	3.09	0.84
	ESL	2.72	0.85	3.27	1.11	2.67	0.97	2.27	0.99	3.57	1.06	3.17	1.01
	EFL	2.65	0.78	3.29	1.09	2.52	0.82	2.09	0.87	3.87	1.01	3.07	0.84
	KNS	2.62	0.77	3.59	1.01	3.02	1.21	2.19	0.87	3.38	1.00	3.52	0.85
S7	ENS	2.36	0.60	2.73	0.80	2.55	0.97	2.88	0.89	3.39	0.93	3.42	0.75
	ESL	2.22	0.70	2.10	0.87	3.27	1.11	2.72	1.06	3.15	1.05	3.50	0.93
	EFL	1.94	0.66	2.52	1.08	2.98	0.96	2.29	0.90	3.46	1.04	3.33	0.97
	KNS	1.75	0.74	2.68	1.06	2.91	1.11	2.35	0.92	3.76	1.07	3.28	1.05
S11	ENS	4.39	0.66	4.61	0.70	4.97	0.17	4.94	0.24	1.24	0.43	4.67	0.74
	ESL	4.20	0.85	4.35	1.10	4.90	0.30	4.75	0.78	1.25	0.54	4.87	0.33
	EFL	4.07	0.72	4.37	0.96	4.76	0.64	4.87	0.39	1.35	0.55	4.81	0.39
	KNS	3.82	0.79	4.40	0.81	4.64	0.79	4.56	0.97	1.97	1.04	4.70	0.68
S15	ENS	4.06	0.79	3.48	0.75	4.33	0.82	3.33	1.19	1.94	0.90	4.03	1.07
	ESL	4.05	0.78	2.57	0.93	3.95	1.08	3.02	1.14	2.67	1.09	3.77	1.12
	EFL	4.18	0.75	3.24	0.91	4.09	0.87	3.35	1.01	2.83	1.09	4.18	0.78
	KNS	4.31	0.74	3.38	0.93	4.26	0.87	3.42	1.10	3.00	1.06	4.15	0.98

#### 4. 분석 및 토론

먼저 4집단이 각 상황에 내재된 변인에 대한 평가에 있어 서로 다르게 또는 같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표 4>과 같이 집단별 상황변인 평가치를 순서대로 배열하여 Spearman Rank Order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알아보았다.

<표 4> 변인에 대한 집단별 상황평가 순위

dominance				distance				obligation				right				difficulty				compliance							
ENS	ESL	EFL	KNS	ENS	ESL	EFL	KNS	ENS	ESL	EFL	KNS	ENS	ESL	EFL	KNS	ENS	ESL	EFL	KNS	ENS	ESL	EFL	KNS				
S7	S7	S7	S7	S1	S7	S1	S1	S5	S5	S5	S5	S5	S5	S5	S5	S11	S11	S11	S11	S5	S5	S5	S7	S5	S5	S5	S7
S5	S5	S5	S5	S7	S1	S7	S7	S7	S7	S7	S7	S7	S7	S7	S7	S15	S1	S1	S1	S7	S7	S7	S5	S1	S15	S1	S1
S1	S1	S1	S1	S15	S15	S15	S15	S15	S15	S15	S15	S15	S15	S15	S15	S1	S15	S15	S15	S1	S15	S1	S1	S15	S15	S11	S11
S15	S15	S11	S11	S5	S5	S5	S5	S1	S1	S1	S1	S1	S1	S1	S1	S7	S7	S7	S5	S15	S1	S15	S15	S11	S11	S11	S11

\* S1: Kitchen S5: Note S7: Ride S11: Policeman S15: Lecturer

Ko(1995, 172)에 따르면 ENS, KNS 두 화자집단은 difficulty 변인을 제외한 나머지 5개 변인들의 인식 평가에 있어 .90~1.00 ( $p < .05$ )의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두 문화가 5가지 상황에 대하여 각각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의 평가척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두 모국어화자 집단을 중심으로 학습자 집단과의 집단간 상황평가 순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dominance 변인에 대한 인식평가에서 ENS-ESL, KNS-EFL집단은 각각 1.0( $p < .05$ )의 상호 동일한 상관성을 갖고 있다. distance 변인의 경우는 ENS-EFL-KNS 의 세 집단은 1.0( $p < .05$ )의 상관성을 나타내어 상호 동일한 순위로 인식 평가되고 있다. obligation, right 변인에 대한 인식 평가에서는 네 집단 상호간에 1.0( $p < .05$ )의 상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difficulty 변인의 경우는 학습자 집단인 ESL-EFL 집단 상호간에 1.0( $p < .05$ )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이지만, 이들 학습자 집단은 ENS/KNS 집단과는 다른 순위를 보여주고 있다. compliance 변인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ENS-EFL 집단간에는 1.0( $p < .05$ )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지만, 여타 집단간의 상관관계는 다소 낮게 평가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ESL, EFL 학습자 집단은 부분적으로는 각각 ENS, KNS 집단과 같은 척도를 가지면서도 각기 다른 양상을 내포하고 있어 중간언어 학습자의 언어 체계가 갖는 불안정성 또는 가변성의 일면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다음 <표 5>과 같이 5가지 요청 상황의 전반적인 변인별 인식

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표 5> 5가지 요청상황 전반에 걸친 변인별 인식평가

variable/ Subject		ENS	ESL	EFL	KNS	F Ratio
dominance	mean	3.36	3.26	3.19	3.12	4.42**
	sd	0.35	0.41	0.35	0.32	
distance	mean	3.40	2.91	3.17	3.14	7.22**
	sd	0.42	0.49	0.42	0.45	
obligation	mean	3.60	3.71	3.63	3.72	0.79
	sd	0.36	0.40	0.43	0.48	
right	mean	3.69	3.40	3.28	3.24	8.31**
	sd	0.40	0.45	0.43	0.48	
difficulty	mean	2.55	2.64	2.83	2.92	6.48**
	sd	0.40	0.46	0.53	0.49	
compliance	mean	3.81	3.89	3.83	3.94	0.83
	sd	0.51	0.48	0.45	0.49	

\*\*p<.01

6가지 변인들 중 obligation, compliance 변인을 제외한 나머지 변인들의 인식에 있어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변인들에 대한 인식의 집단별 차이 유무를 자세히 검증하기 위하여 t 검증을 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 (1) KNS-EFL 두 집단은 6가지 변인 인식에 있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동일한 상황변인 인식체계를 공유하는 것을 볼 수 있다.
- (2) KNS-ESL 두 집단은 dominance(t:-2.11, p<.05), distance(t:2.69, p<.01), difficulty (t:3.16, p<.01) 등 세 변인의 인식에 있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여타 변인의 인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다.
- (3) KNS-ENS 두 집단은 Ko(1955)에 따르면 dominance(t:-3.64, p<.01), distance(t:-2.81, p<.01), right(t:-4.71, p<.01), difficulty (t:3.16,

$p < .01$ ) 등 네 변인의 인식에 있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 (4) EFL-ESL 두 집단은 distance( $t: 2.76, p < .01$ ) 변인의 인식에서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 (5) EFL-ENS 두 집단은 dominance( $t: -2.19, p < .05$ ), distance( $t: -2.47, p < .05$ ), right ( $t: -4.36, p < .01$ ), difficulty ( $t: 2.57, p < .05$ ) 등 네 변인의 인식 평가에 있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 (6) ESL-ENS 두 집단은 distance( $t: -4.50, p < .01$ ), right ( $t: -2.83, p < .01$ ) 등 두 변인의 인식 평가에 있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t 검증의 결과를 보면 EFL 집단은 ENS 집단의 변인 인식 체계와는 구별되며, 반면에 KNS 집단과는 동일한 변인인식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ESL 집단은 KNS 집단과는 분명히 구별되며, ENS 집단과는 상대적으로 유사한 인식평가 체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앞서의 <표 3>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각 상황별로 변인들에 대한 집단별 인식평가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 (1) S1: distance( $F: 6.58, p < .01$ ), right( $F: 10.19, p < .01$ ) 두 변인의 인식 평가에 있어 4집단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 (2) S5: distance( $F: 3.54, p < .05$ ), obligation( $F: 7.52, p < .01$ ), right( $F: 3.32, p < .05$ ), difficulty( $F: 2.79, p < .05$ ), compliance( $F: 3.99, p < .01$ ) 등 5개 변인의 인식 평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 (3) S7: dominance( $F: 8.57, p < .01$ ), distance( $F: 3.63, p < .05$ ) obligation( $F: 2.93, p < .05$ ), right( $F: 4.17, p < .01$ ), difficulty( $F: 3.66, p < .05$ ) 등 5개 변인의 인식 평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 (4) S11: dominance( $F: 5.47, p < .01$ ), obligation( $F: 3.08, p < .05$ ), right( $F: 3.22, p < .05$ ), difficulty( $F: 13.53, p < .01$ ) 등 4개 변인의 인식 평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 (5) S15: distance(F: 8.82,  $p < .01$ ), difficulty(F: 8.51,  $p < .01$ ) 두 개 변인의 인식평가에 있어 4집단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각 상황별 변인들에 대한 통계적 의미는 Ko(1995)의 KNS 와 ENS 두 집단간의 차이에 기인하는 요인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집단별 특성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표 3>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집단별 짝을 이룬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두 학습자 집단의 상황별 변인들에 대한 인식 평가의 경향이 ENS 집단과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ENS-ESL, ENS-EFL 집단별 통계검증을 하였고, 이어서 두 학습자 집단 사이에는 서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ESL-EFL 집단에 대한 통계 검증을 하였다. 이어서 논의의 목적상 두 학습자 집단의 인식평가 성향의 KNS 집단의 의존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KNS-ESL, KNS-EFL 집단별 t 검증을 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 (1) ENS - ESL

<표 6> ENS-ESL 집단의 요청상황별 매개변인 인식 평가치에 대한 t-검증결과

Sit.	dominance	distance	obligation	right	difficulty	compliance
S1	-1.15	0.03	1.08	-2.17*	-0.09	1.23
S5	0.60	-2.77**	2.66**	-1.80	-0.26	0.38
S7	-0.90	-3.77**	2.96**	-0.66	-1.04	0.38
S11	-1.07	-1.20	-1.23	-1.46	0.06	1.50
S15	-0.06	-4.52**	-1.68	-1.13	3.09**	-0.99

\* $p < .05$     \*\* $p < .01$

먼저 Kitchen 상황에서는 요청의 권리(right) 변인에 대한 인식에서 두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ESL 집단이 상황에



내재된 요청의 권리에 대한 인식에 있어 ENS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Note 상황에 있어서는 내재된 요청의 대상에 대한 사회적 거리(distance)와 요청수행의 의무(obligation) 변인에 대한 인식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ESL 집단은 상황에 관련된 요청대상에 대한 사회적 거리(distance)는 ENS 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가깝게 인식하고 있으며, 상대방의 요청에 응할 의무(obligation)는 ENS 집단 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보았다. 이러한 현상은 ENS 집단과의 상대적 관점에서 KNS-EFL 집단이 갖는 성향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Ride 상황에서는 앞서의 Note 상황과 마찬가지로 요청의 대상에 대한 사회적 거리(distance)와 요청수행의 의무(obligation) 변인에 대한 인식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이고 있으며, 두 집단간 상대적 차이는 Note 상황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Policeman 상황은 두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Lecturer 상황에서는 요청의 대상에 대한 사회적 거리(distance)와 요청자인 화자의 심리적 어려움(difficulty)과 관련된 변인의 인식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이고 있는데, ESL 집단의 경우 요청의 대상에 대한 사회적 거리(distance)는 ENS 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가깝게 인식하고 있으며, 요청의 어려움의 정도에 있어서는 ENS 집단의 인식보다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 (2) ENS - EFL

<표 7> ENS-EFL 집단의 요청상황별 매개변인 인식 평가치에 대한 t-검증결과

Sit.	dominance	distance	obligation	right	difficulty	compliance
S1	-1.22	0.65	-1.18	-4.76**	-0.36	-0.59
S5	0.24	-2.84**	2.33*	-2.94**	1.08	-0.09
S7	-2.98**	-0.96	2.04*	-2.93**	0.31	-0.46
S11	-2.07*	-1.22	-2.27*	-1.02	0.97	1.07
S15	0.73	-1.29	-1.28	-0.08	3.95**	0.72

\*p<.05    \*\*p<.01

먼저 Kitchen 상황에서는 요청의 권리(right) 변인에 대한 인식에서 두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EFL 집단이 상황에 내재된 요청의 권리에 대한 인식에 있어 ENS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Note 상황에 있어서는 요청의 대상에 대한 사회적 거리(distance)와 요청수행의 의무(obligation), 요청의 권리 변인들에 대한 인식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EFL 집단은 상황에 관련된 요청대상에 대한 사회적 거리(distance)는 ENS 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가깝게 인식하고 있으며, 상대방이 요청에 응할 의무(obligation)는 ENS 집단 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보았다. 요청의 권리(right)에 대하여는 ENS 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다고 인식하고 있다. ENS 집단과의 상대적 관점에서 KNS, ESL, EFL 세 집단은 서로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Ride 상황에서는 요청대상에 대한 사회적 힘(power), 요청수행의 의무(obligation), 요청의 권리(right) 변인에 대한 인식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요청자 자신의 요청대상에 대한 상대적 사회적 힘의 관계에 대한 인식은 ENS 집단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로 나타나고 있으며, 요청의 의무와 요청수행의 권리 변인에 대한 두 집단간 상대적 차이는 Note 상황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Policeman 상황은 사회적 힘(power)과 요청의 의무(obligation) 변인의 인식에 있어 두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EFL 집단은 경찰관에 대하여 ENS 집단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사회적 힘을 갖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요청에 응 할 의무 변인에 대하여는 EFL 집단이 미세하지만 ENS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다.

Lecturer 상황에서는 요청의 대상에 대한 요청자의 심리적 어려움(difficulty)과 관련된 변인의 인식에 있어 두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이고 있는데, EFL 집단의 경우 담당교수의 리포트 제출 기일 변경 요청이 심리적으로 ENS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EFL 집단의 인식평가는 ENS 집단과 비교하여 5개 상황에 걸쳐 의무와 권리 변인에 대한 인식에 있어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고 있다.

(3) ESL - EFL

<표 8> ESL-EFL 집단의 요청상황별 매개변인 인식 평가치에 대한 t-검증결과

Sit.	dominance	distance	obligation	right	difficulty	compliance
S1	0.05	0.68	0.35	-2.24*	0.45	-2.13*
S5	-0.46	0.09	-0.85	-0.95	1.37	-0.53
S7	-2.00*	2.02*	-1.37	-2.11*	1.44	-0.84
S11	-0.77	0.10	-1.41	0.90	0.89	-0.78
S15	0.85	3.47**	0.71	1.46	0.69	1.99

\*p<.05    \*\*p<.01

먼저 Kitchen 상황에서는 요청의 권리(right)와 요청에 대한 승낙 가능성(compliance) 변인에 대한 인식에서 두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EFL 집단은 상황에 내재된 요청의 권리에 대한 인식에 있어 ESL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요청의 승낙 가능성에 대하여는 EFL 집단이 ESL 집단 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다.

Note 상황에 내재된 변인들에 대하여 두 집단의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Ride 상황에서는 요청대상에 대한 사회적 힘(power), 사회적 거리(distance), 요청의 권리(right) 변인에 대한 인식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요청자 자신의 요청대상에 대한 상대적 사회적 힘의 관계에 대하여 EFL 집단이 ESL 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상대방과의 친소관계에 있어 EFL 집단은 ESL 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먼 관계로 인식하고 있다. 요청자의 권리 변인에 대하여는 EFL 집단이 ESL 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Policeman 상황의 경우 Note 상황과 마찬가지로 내재변인들의 인식에 있어 두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Lecturer 상황에서는 요청의 대상과의 친소관계 변인의 인식에 있어 두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이고 있는데, EFL 집단의 경우 ESL 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먼 관계로 인식하고 있다.

(4) KNS - ESL

<표 9> KNS-ESL 집단의 요청상황별 매개변인 인식 평가치에 대한 t-검증결과

Sit.	dominance	distance	obligation	right	difficulty	compliance
S1	-0.04	-2.75**	0.22	-3.13**	-0.06	-0.58
S5	-0.71	1.60	1.60	-0.53	-1.01	2.01*
S7	-3.47**	-3.07**	-1.76	-2.06*	3.07**	-1.16
S11	-2.47*	0.27	-2.78**	-1.12	5.27**	-2.00*
S15	-1.83	-4.62**	-1.75	-1.90	1.62**	-1.97

\*p<.05    \*\*p<.01

Kitchen 상황에서 두 집단은 사회적 거리(distance)와 요청의 권리(right) 변인의 인식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ESL 집단은 친소관계에 있어 KNS 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다소 소원한 관계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요청의 권리도 더 많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Note 상황에서는 요청에 대한 상대방의 승낙 가능성(compliance) 변인 인식에 있어 두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ESL 집단이 KNS 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승낙가능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다.

Ride 상황의 경우 상황에 내재된 사회적 힘(power), 사회적 거리(distance), 요청의 권리(right), 그리고 요청의 어려움(difficulty) 변인들에 대한 인식에 있어 두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Policeman 상황의 경우 사회적 힘(power), 요청의 권리(right), 요청의 어려움(difficulty), 그리고 요청에 대한 승낙 가능성(compliance) 변인들에 대한 인식에 있어 두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Lecturer 상황에서는 사회적 거리(distance)와 요청의 어려움(difficulty) 변인에 대한 인식에 있어 두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두 집단은 5개 상황에 걸쳐 상대방과의 사회적 거리와 요청의 어려움 정도에 대한 인식에 있어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고 있다.

### (5) KNS-EFL

<표 10> KNS-EFL 집단의 요청상황별 매개변인 인식 평가치에 대한 t-검증결과

Sit.	dominance	distance	obligation	right	difficulty	compliance
S1	-0.12	-3.87**	-0.21	-0.58	-0.67	1.91
S5	-0.23	1.65	3.02*	0.63	-2.86**	3.07**
S7	-1.59	0.90	-0.41	0.35	1.67	-0.32
S11	-1.91	0.22	-0.95	-2.81**	4.74**	-1.30
S15	0.98	0.90	1.12	0.39	0.91	-0.20

\*p<.05    \*\*p<.01

Kitchen 상황에서 두 집단은 사회적 거리(distance) 변인의 인식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EFL 집단은 친소관계에 있어 KNS 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다소 소원한 관계로 인식하고 있다.

Note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요청수행 의무(right), 요청의 어려움(difficulty), 그리고 요청에 대한 상대방의 승낙 가능성(compliance) 변인 인식에 있어 두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Ride 상황의 경우 상황에 내재된 변인들에 대한 인식에 있어 두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Policeman 상황의 경우 요청의 권리(right)와 요청의 어려움(difficulty) 변인들에 대한 인식에 있어 두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Lecturer 상황에서는 두 집단은 변인들의 인식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보면 EFL 집단의 상황별 변인 인식 평가에 있어 요청의 어려움(difficulty) 변인을 제외하고는 KNS 집단과 체계적인 차이는 미미

하다고 볼 수 있다.

(6) KNS - ENS

<표 11> KNS-ENS 집단의 요청상황별 매개변인 인식 평가치에 대한 t-검증결과

Sit.	dominance	distance	obligation	right	difficulty	compliance
S1	-1.39	-2.32*	-1.60	-6.57**	-0.18	0.92*
S5	0.08	-1.78	4.09**	-2.79**	-1.28	2.47*
S7	-4.30**	-0.23	1.67	-2.86**	1.77	-0.87
S11	-3.72**	-1.29	-3.84**	-3.58**	5.57**	0.25
S15	1.64	-0.58	-0.44	0.46	5.15**	0.61

\*p<.05    \*\*p<.01

Ko(1995, 175)에 따르면, Kitchen 상황에서 ENS 집단은 KNS 집단과 비교하여 요청의 권리(right)가 더 크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대화자 상호간의 사회적 거리(distance)는 KNS 집단이 더 가깝게 인식하고 있었다.

Notes 상황에 있어서는 KNS 집단은 ENS 집단에 비교하여 노트를 빌려 달라는 요청에 응할 의무(obligation)가 더 크다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요청의 권리(right)는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KNS 집단은 상대방의 승낙을 얻을 가능성(compliance)은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보았다.

Ride 상황의 경우 ENS 집단은 요청자의 지위를 평가함에 있어 KNS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여 보다 대등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요청의 권리(right) 또한 ENS 집단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보아 마땅히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Policeman 상황의 경우 ENS 집단은 경찰관의 지위를 더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요청의 권리(right)와 요청에 응할 의무(obligation) 또한 더 크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KNS 집단은 요청의 어려움(difficulty)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인식하였다.

Lecturer 상황의 경우에도 KNS 집단은 요청의 어려움(difficulty)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를 종합해보면, 두 집단은 요청상황에 내재된 요청의 권리(right)에 대한 인식에 있어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요청에 응할 의무(obligation)와 요청의 어려움(difficulty) 변인에 대한 인식에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 5. 결 론

고인수(1998)의 II 화용론 연구를 통하여 학습환경을 달리하는 한국인 영어학습자 집단의 요청화행을 중심으로 화용언어적 전이(pragmalinguistic transfer)의 양상과 그 실체를 확인하였고, 이를 통하여 EFL 집단의 요청화행은 ESL 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L1인 한국어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II 연구를 통하여 학습자의 L2에 관한 화용언어적 지식이 L2 모국어 화자와 어떻게 다른지, 학습자의 L1의 화용적 영향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다. EFL집단의 화용언어적 전이 양상은 ESL집단과 상황별 변이를 나타내고 있는데<sup>10)</sup>, 이는 각 상황에 내재된 상황내·외적 변인들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론되었다.

우리는 본 연구를 통하여 두 학습자 집단의 화용언어적 전이 양상의 차이가 상황에 내재된 변인들에 대한 인식평가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임

---

10) 고인수(1998; 2000)는 집단별 5개 요청상황의 요청화행 전략의 간접성(indirectness) 변이를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는데, 이들 요청전략의 간접성은 Blum-Kulka/House(1989), Kasper(1990)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상황개개변인에 대한 인식평가 양상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다음 도표에 나타난 II 화자집단의 요청전략 구현의 상황별 변이 양상을 적절히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경험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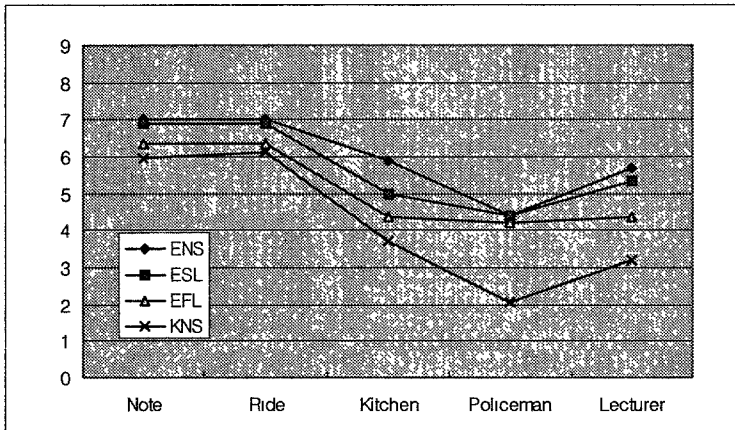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EFL 집단은 상황변인 인식평가에 있어 KNS 집단과 유사함을 나타내고 있었고, ESL 집단의 상황변인 인식평가는 EFL 집단과는 상대적으로 KNS 집단과 구별되었고, 한편으로 ENS 집단의 인식평가와 상대적으로 가깝지만 L2 공동체의 규범과 같지는 않았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사회화용적 전이(sociopragmatic transfer)의 양상과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Wolfson(1989)이 지적하고 있듯이 IL 화용론의 경험적 연구 결과들은 수업현장의 교사들에게 SL 구사능력의 내용에 대한 통찰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습자의 L1과 L2의 특성에 따른 교수요목, 교재 개발 등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또한 학습자들에게 어떻게, 왜 의사소통 불능 사태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른바 의사소통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오해를 피할 수 있도록 해준다.

Blum-Kulka(1991), Kasper(1990), Ko(1995)등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화행의 화용언어적 측면은 공손(politeness)의 사회언어적 측면, 사회화용적 측면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전이가능성(transferability)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cf. Takahashi

<도표 4> 4집단의 간접성 수준의 상황별 변이 도표(고인수 2000, 413)



1992; Cebrian 2000)과 더불어 IL에 나타난 화용적 전이에 관한 보다 근원적이고 명시적인 접근을 위한 방편으로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IL 화용론의 체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Kasper/Blum-Kulka(1993)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학습자의 언어행위에 대한 L2 모국어 화자의 적합성(appropriateness) 평가와 같은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학습자의 IL이 갖는 의사소통효과(communicative effect)에 대한 예측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문화간 의사소통 상황에서의 사회언어적 의사소통장애와 관련된 문제들을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고인수(1998). 영어학습자의 요청화행에 나타나는 화용적 전이(1). 언어 23권 3호, 399-430.
- 고인수(2000). 중간언어화용론. 황적륜 편. 『현대영어교육의 이해와 전망』, 서울대학교출판부. 391-431.
- Beebe, L. M. (1985). Speech act performance: A function of the data collection procedures? Paper presented at the 18th Annual TESOL Convention, New York.
- Blum-Kulka, S. (1991). Interlanguage pragmatics: The case of requests. In P. Phillipson, E. Kellerman, M. Sherwood Smith, & M. Swain, eds., *Foreign/Second language pedagogy research*, 255-272.. Cleveland: Multilingual Matters.
- Blum-Kulka, S. (1997). Discourse pragmatics. In van Dijk, T. A. ed., *Discourse as social interaction. discourse studies: A multidisciplinary introduction*, Vol. 2. 38-63. London: SAGE Publications.
- Blum-Kulka, S. & J. House. (1989). Cross-cultural and situational variation in requestive behaviour. In S. Blum-Kulka, J. House, & G. Kasper, eds., 1989a. 123-154.
- Blum-Kulka, S., J. House, & G. Kasper, eds., (1989a). *Cross-cultural pragmatics: Requests and apologies*, Norwood, NJ: Ablex..
- Blum-Kulka, S., J. House, & G. Kasper. (1989b). Investigating cross-cultural

- pragmatics: An introductory overview. In S. Blum-Kulka, J. House, & G. Kasper, eds., 1989a. 1-34.
- Bodman, J. W., & Eisenstein, M. (1988). May God increase your bounty: The expression of gratitude in English by native and nonnative speakers. *Cross Currents*, 15, 1-21.
- Cebrian, J. (2000). Transferability and productivity of L1 rules in Catalan-English interlanguage.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22(1). 1-26.
- Eisenstein, M., & J. W. Bodman. (1986). I very appreciate: Expressions of gratitude by native and non-native speakers of American English. *Applied Linguistics* 7, 167-185.
- Fukushima, S. (1990). Offers and requests: Performance by Japanese learners of English. *World Englishes*, 9, 317-325.
- Hill, B., S. Ide, S. Ikuta, A. Kawasaki, & T. Ogino (1986). Universals of linguistic politeness: Quantitative evidence from Japanese and American English. *Journal of Pragmatics*, 10, 347-371.
- Holtgraves, T. & J.-N. Yang. (1990). Politeness as universal: Cross-cultural perceptions of request strategies and inferences based on their us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715-729.
- Kasper, G. (1990). Pragmatic transfer. *University of Hawai'i Working Papers in ESL* 9(2), 1-34.
- Kasper, G. & S. Blum-Kulka, eds., (1993). *Interlanguage pragmatic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Ko, I.-S-. (1995). A cross-cultural study of requests in English and Korean. Doctoral Dissertation,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 Lim, T.-S-. & T. W. Bowers. (1991). Facework: Solidarity, approbation, and tact.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17, 415-450.
- Rintell, E. & C. J. Mitchell. (1989). Studying requests and apologies: An inquiry into method. In S. Blum-Kulka, J. House, & G. Kasper, eds., 1989a, 248-272.
- Seliger, H. W. (1983). Learner Interaction in the Classroom and Its Effect on Language Acquisition. In H. Seliger & M. Long, eds., *Classroom Oriented Research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246-267. Rowley, MA: Newbury House.
- Takahashi, S. (1992). Transferability of indirect request strategies. *University*

- of Hawai'i Working Papers in ESL*, 11, 69-124.
- Takahashi, T. & L. M. Beebe. (1987). The development of pragmatic competence by Japanese learners of English. *JALT Journal* 8, 131-155.
- Takahashi, T. & L. M. Beebe. (1993). Cross-linguistic influence in the speech act of correction. In G. Kasper, & S. Blum-Kulka, eds., 138-157.
- Tanaka, N. (1988). Politeness: Some problems for Japanese speakers of English. *JALT Journal*, 9, 81-102.
- Trosborg, A. (1995). *Interlanguage pragmatics: Requests, complaints and apologies*. New York: Mouton de Gruyter.
- Wolfson, N. (1989). *Perspectives: Sociolinguistics and TESOL*. New York: Newbury House.
- Wolfson, N., T. Mamor, & S. Jones. (1989). Problems in the comparison of speech acts across cultures. In S. Blum-Kulka, J. House, & G. Kasper, eds., 1989a, 174-198.

## 《Abstract》

## Pragmatic Transfer in EFL/ESL Requests(2)

Ko, Insoo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aspects of sociopragmatic transfer in Korean ESL/EFL requests through the empirical data collection procedures. The assumption is that the pragmalinguistic transfer in the learners' interlanguage can be motivated from the sociopragmatic transfer in the evaluation of the related contextual factors. The hypothesis is that EFL learners show more similarity of perceptual patterns to those of L1 group, comparing with the ESL learners. The main findings are: (1) The difference in learning context has some impact on the perceptual assessment of the sociopragmatic patterns of learners' requesting behaviors; (2) While sociopragmatic transfer in assessment of contextual variables was found in both learner groups, i.e. EFL group and ESL group, influence from Korean was considerably more pronounced in the EFL learners' perceptual assessment for the related variables. The result suggests that learning context can be assumed to have considerable role in shaping learners' perceptual patterns of the target language norms at the pragmalinguistic and sociopragmatic level, and hence have an impact on the learners' communicative behavior.